전남도, 5개 출연기관 통폐합 … 신설 중단

고분자센터·한방산업진흥원·뱀장어종묘연구센터 등
정원 58명 감축 … 고질적 적자구조 개혁엔 미흡 지적

전남도가 출연·연구기관 경영진단을 통해 5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신설을 중지하고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출연기관의 고질적인 재정 의존 및 적자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고도 만성적인 적자를 내는 근본 원인을 규명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35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재정 부담과 역할 부족,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5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신설을 중지할 방침이다.

고흥에 위치한 테크노파크 산하 고분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부족하고 인근 특화산단 미조성 등으로 독자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소재센터와 통합하기로 했다. 생물산업진흥원 소속 한방산업진흥원은 2016년에 설립 예정인 국립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해 산하 연구원 형태로 운영한다. 한방산업진흥원 통폐합에 따라 소속 행정운영 인력 7명을 감축한다.

해양수산과학원 산하 13개 연구센터 중 설립이 진행중인 뱀장어종묘연구센터, 젓갈식품연구센터, 해조류부산물가공연구센터 등 3개 센터는 설립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 뱀장어종묘연구센터는 관련 연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미 하고 있고, 젓갈식품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국립세계젓갈식품연구소를 전국 대상으로 공모하며, 해조류부산물가공연구센터는 해양바이오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된 기능 조정과 함께 일부 위탁업무는 전남도 관련 실과로 환원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테크노파크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능은 상반기 중 일원화하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복지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은 각각 복지 정책과 남도문화 브랜드화 등 고유 업무를 강화한다.

청소년미래재단은 고위험 청소년 상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광역 기능으로 개편하고, 완도수목원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업무를 이관 받는다.

전남도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정관 개정,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실천할 방침이다. 이들 출연·연구기관의 총 설립비용은 5309억원, 지난해 예산 2374억원 중 지방비 출연금은 도 177억원, 시·군비 41억원 등 모두 218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7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남도는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실시한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진단도 조만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무성 "당이 주도해 국정현안 풀 것"

與투톱 '증세없는 복지' 비판
심상찮은 당·청 … 격변 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심상찮은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날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수평적 당청관계가 예고된데 이어 3일 김무성 대표가 당이 국정을 주도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청와대와 정부에 인사와 정책 등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끌려가던 당의 모습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청와대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어제 저희 새누리당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다"며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전날 유 원내대표의 발언과 같은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의 처리를 야당에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EBS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DMB에서 MMS까지(김경환 상지대 교수) ▲EBS의 MMS 시범서비스 시행계획(김재천 EBS 학교교육기획부장) ▲EBS MMS에 갖는 3가지 기대(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EBS 방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하재근 문화평론가) ▲종합적인 지상파 MMS 정책 확립부터(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 ▲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과 관련(정인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사무관)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순태 칼럼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

오 헨리 소설에 '경관과 찬송가'가 있다.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 소피는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앉아 어떻게 하면 얼어 죽지 않고 올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걱정을 한다. 고민 끝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감옥에 가기 위해 우산을 훔쳤으나 붙잡히지 않았고, 무전취식을 했는데도 식당 주인은 그를 동정했으며, 경찰관을 발로 차려다 오히려 넘어지고 만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찬송가가 들려오는 교회에 들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온다. 이 때 경찰관이 신분증 조사를 하였고 부랑자라고 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소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변에는 경제적인 토대가 자리하고 있다. 오 헨리는 이 소설에서 19세기 말 미국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이 작품을 쓸 무렵인 19세기 말 미국은 유럽에서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도시화가 급진전됐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던 때였다. 미국은 이 무렵 1인당 GNP 증가율이 2.2%의 성장기였으며 1869년 최초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최근 부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40대 남성이 둔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가 "나는 강도다" 라고 위협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했단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감옥을 택한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신문의 설문조사에서 1억 원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 고교생들이 꽤 많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사람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눈앞에 뒀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듯 먹고 살기가 힘들까. 감옥에 가기를 원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것은 꿈을 잃어 버렸음을 말해 주는 사례다. 왜 꿈을 포기한 것일까. 우리 사회구조가 가난 탈출로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길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2014년까지 전국 70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14년 빈곤층 가구 (연간소득 1841만 원이하) 중에서 중산층(1842~5524만원) 으로 상승한 비율이 22.3%에 그쳤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2013년 고소득층이던 사람 중 여전히 고소득층으로 남은 사람 비율은 77.3%로 전년에 비해 2.1% 포인트 상승했다.

임시일용직 83.0%는 1년 후에도 일용직에 머물렀고 13.1%만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이것은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어, 한 번 가난뱅이는 영원히 가난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이제 넘어지면 재기할 수도 없다. 빈곤 고착화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져, 서민들은 삶의 의욕과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빈곤가구의 자활 의지를 꺾는,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력하면 성공 한다'느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노력해도 안 된다' '큰물에서만 용 난다'로 바뀐 지 오래다. IMF 이후 저성장과 불황 장기화, 빈부의 양극화로 인한 집단적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꿈과 의욕을 빼앗아 가 버린 것이다. 거기다가 청년취업난까지 겹쳐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살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드 레이지(도로위의 분노)처럼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아무에게나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싶어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분풀이 충동범죄가 15만 건이나 발생했다지 않은가.

우리는 뺑소니 사고로 숨진 '크림빵 아빠'를 통해 어두운 이 시대 젊은 엘리트의 초상을 보았다. 그는 꿈을 잃지 않았다. 사범대학을 수석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트럭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했다.

임신한 아내가 케익이 먹고 싶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 크림빵을 사가지고 오다 참변을 당한, 스물아홉 살의 젊은이 때문에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하다. 문득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라는 시의 첫 구절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가 생각난다. 진정, 가난이 눈물이 아니라 남루에 지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소설가〉